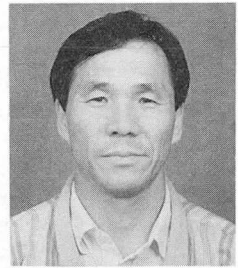


무허가 축사 양성화 조치에 부처



박 동 래
(본회 부천시부장)

'92년 한해도 가고 있다.

물과 함께 가는 듯 벌써 10월이 다 되었고 11월 문턱 앞이 보인다.

어느날 반가운 소식이 왔다. 그간 축산인들이 소, 돼지, 닭을 기르며, 내 땅에 내가 움막을 치고 돼지우리, 소우리, 닭우리를 만들어 기르고 있는데 불법 건축물이라 허가 없이 소우리, 닭우리, 돼지우리를 만들었다고 시, 군, 동, 면에서 공무원이 찾아와 죄인임을 가르쳐 놓고 항상 그 때문에 불안해 했다.

그간 도시개발 지역 내에서 상주 축산업을 하는 분들 중 몇년전에는 보상없이 강제 철거를 해서 하루 아침에 직업없고 집마저 잃어버린 사례가 과거 우리 축산 농민들의 현실이었다. 가축 분 내음새 맡아서 살려는 것도 죄라니, 허가 내어 현대 건물 짓자니 토지 형질변경, 건축설계와 허가가 너무 복잡해서 시일이 많이 걸리고 경제면으로 넉넉치 못한 형편인고로 무허가로 축사를 짓고 축산업을 영위해서 생계를 연명해 왔다.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때론 허탈감마저 버리지 못할 때가 많았다. 그에 더하면 소 파동, 돼지파동을 겪으면서 자살 행위도 있었다. 그 와중에 우리 축산인들은 끝까지 굶치지 않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밥상위에 계란, 우유, 돼지고기, 닭고기, 쇠고기를 공급하는데 크게 이바지해 왔고 그 힘으로 오늘의 공업이 발전했다고 자부하는 바이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얼마후면 때론 좌절이 앞을 가리울 때가 많았다. 그런데 앞으로 더욱 큰 산이 놓여 있으니 그 산을 넘으려면 한 걸음 한걸음씩 앞을 보고 달려야 할 것이다.

요즘 정부에서 축산인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했다고 하시겠으나, 양축농가들의 편의는 아직 양파처럼 몇 겹질이 겹겹이 쌓여 있다는 것을 양축농가를 위하여 항상 염두에 두고 깊이 새겨 나도 농민의 뿌리 라는 것을 잊지말고 앞으로 우리나라 축산업 발전이 날로 커져 세계에 뒤지지 않게 뒷받침이 되었으면 한다. 가축 분 내음새 맡고 가축 분 뒤집어 쓰는 것은 우리 축산인들이 하고 보상의 댓가는 국민들의 협조가 절실히 필요하다.

“

실제 실무 전선에서 현실에 맞는
 현대식 형평 원리에 맞게 도시계획을 세우는데
 축산지역인 특수지역을 선정, 설정하고 그 지역에선 그 업종에 맞는 업을
 경영코자 하는 자에게 자유자재로 선시설 후 신고필이 있어
 행정관서에서 추진하는 제도로 하는 방법이 있어야
 오늘에 까지 시달려온 무허가 건축물 산업이란
 낙인이 찍히지 않을 것이고 우리나라에서
 축산인들이 죄인 안되는 길이라고 본다.

”

물밀듯이 밀려오는 외국 농축산물을 막는 길은 없는지, 그 길은 정부의 뒷받침과 국민 스스로
 개개인이 내 국민, 내 국가 번창의 길이 무엇인가를 냉철이 판단하여 수입 농축산물을 만지지 말
 고, 보지 말고, 사지 않는 운동이 벌어져 전개될 때 우리나라 국력이 넘쳐지게 될 것이다.

축산업이 발전하다 보니 환경문제가 대두되어 가축분뇨가 냇물과 강, 바다물을 오염시킨 것으
 로 언론에서 이야기들 하나 축산 분뇨는 폐기물 폐수가 아님을 꼭 알아야 할 것이다. 가뜰이나
 농촌 일손이 모자라 퇴비 증산에 인력을 투입 못해 농토는 날로 화학비료만 의존되어 산성화가
 되어 이대로 가면 곡식소출이 줄어들 것은 뻔한 사실이다.

이 때 우리 축산인들은 국가에 크게 이바지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함과 동시에 가급적이면,
 축산업이 관에 간섭 덜 받고 자연스럽게 축산업을 할 수 있는 행정적인 법적 보장이 절실히 요
 구된다.

실제 실무 전선에서 현실에 맞는 현대식형평 원리에 맞게 도시계획을 세우는데 축산지역인
 특수지역을 선정, 설정하고 그 지역에선 그 업종에 맞는 업을 경영코자 하는 자에게 자유자재로
 선 시설 후 신고필이 있어 행정관서에서 추진하는 제도로 하는 방법이 있어야 오늘에 까지 시
 달려온 무허가 건축물 산업이란 낙인이 찍히지 않을 것이고 우리나라에서 축산인들이 죄인 안되
 는 길이라고 본다. 무허가 양성화가 무엇때문에 필요 했는지 깊이 생각하여 볼 때 농민들이 죄인이
 아니요 제도상에 농민들이 죄짓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 때가 오도록 우리 축산인들은 끈기있게 심혈을 기울여 노력 건의해야 할 것이며, 그에 따라
 정부행정 당국에서는 끊임없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다. 농민을 돕는다는 생각만 갖지 말고 나와
 가족과 나라와 미래에 후손들을 위한일로 생각하는 정부의 방침아래 뒷받침이 된다면 더 바랄
 것이 없을 것이다.

인력난, 교통난 등으로 농축산물 생산원가는 날로 가중되는데, 그에 더 부채질하는 수입자유
 화관 물결의 큰 파도 때문에 과연 우리나라 농축산업이 생존할 수 있을런지 의문이 쌓인다.

걱정한다고 해결되는 일이 있을리 없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먼저 생각하고 그에 따라
 움직이는 자만이 살아남음을 글을 통해 남기고 이만 줄이기로 한다.